

# 경주 불교문화 콘텐츠 무궁무진...

진병길 원장 (경주 신라문화원)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 1984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사학과에 입학해 불교학생회 회장 등을 맡아 백상탑 건립 등을 주도 했다. 졸업 후 불교신문 지국장을 거쳐 1993년 신라문화원을 개원해 다양한 문화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유적 정화를 위한 봉사 활동도 펼쳐왔다. 이에 문화재청 대한민국 문화유산 부문 대통령령상, 제17회 불이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봤을 추억의 수학여행지 경주. 경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이자, 불교문화의 산실이지만 그만큼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경주를 조금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불교활동가가 있다. 바로 진병길 신라문화원원장이다.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51)은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경주의 살아있는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이것이 우리 전통문화유산임을 전하는 꿈을 꾸다"고 말했다. "경주를 그저 '유명한 관광지이니 한 번 가보자', 혹은 '옛날에 가보았는데 또 가느냐'는 곳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꾸만 생각나고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1993년 개원한 신라문화원은 신라달빛기행, 추억의경주수학여행, 경주남산불적답사 등 불교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십수년째 운영 중인 이들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중학교 때 '불교활동가'로 발심

사실 한 개인이 문화단체를 창립해 20년 넘게 유지·발전시켜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여기에 쏟아 부었다. 신라문화원 재정확보를 위해 집안의 땅을 모두 다 팔았을 정도다. 가정에서는 낙제점 가산이지만 '신라의 혼에 썬 사람'이란 찬사도 듣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라문화원을 만든 원동력이다.

그 시작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교생 실습을 나온 전용자 선생(법우 스님)의 가르침에 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전용자 선생은 대구구도회 출신으로 이기영 박사, 최석호 법사 등과 같이 재가불자로서 당시 대중강연에 활발히 나섰다.

"항상 바르신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대하시면서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임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불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전용자 선생의 지도하에 사찰을 찾은 진 원장은 불교활동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고등학교 때는 불교학생회 회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회를 이끌다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부족했다. 집에 체육복을 5번이나 산다고 하고, 그 돈으로 불자학생대회 비용을 내기도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멘토 역할을 했던 전용자 선생이 출가하며 불교활동가로서의 뜻은 더욱 굳어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사학과 84학번으로 입학한 그는 문화유산을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 경주가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점을 활용해 포교도 병행해야겠다고 원력을 세웠다.

불교학생회장을 맡아 학내 불교활동을 하는 한편 우뚝 스님 시화전, 선지식 초청법회 등을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열기도 했다. 그의 활동가로서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상징이 된 백상탑을 조성한 일이었다.

"교내에 종립학교임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힘을 모아 무엇을 해낸다면 더욱 뜻 깊을 것이라 여겼어요. 불교학생회 회장일 때 백상탑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탑 건립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본예산안을 만들었다. 이어 총학생회에서 종교부장을 하며 모연활동에 나섰다. 먼저 학생회 간부들이 나서 장학금을 일부 기부했다. 전 동국대 학생이 3000원씩 모은 돈을 기반으로 화주를 하러 다녔다.

이런 학생들의 열정에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3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직원들도 몇만원씩 기부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총 1억 300만원이 모아졌다.

"스님들이 저를 보고 '화주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상탑 조성활동을 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공심을 가지고 지극히 정성을 기울이면 안 될 일이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고요."

졸업과 동시에 1990년 진병길 원장은 대학시절 불교활동을 바탕으로 '불교신문' 경주지사를 개설했

를 탐방하는 '달빛역사기행'을 비롯해 경주도 수학여행 왔던 옛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중년들이 교복을 입고 불국사 석굴암을 돌아보는 '추억의 수학여행'의 아이디어도 진 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특히 남산 칠불암에서 시작해 불국사 등을 돌아보는 달빛기행은 경주야간투어의 대명사가 됐다. 매년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돼 서울 창덕궁 달빛기행 등 야간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진 원장은 '신라문화체험장'도 자신이 학창시절 사찰에서 뛰어놀았던 데서 착안해 냈다. 첨성대 앞에 자리한 체험장은 300평 규모로 20여 명의 체험강사, 불상을 비롯한 문화재모양 비누만들기, 금관체험 등 문화재를 응용한 10여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문화재 영상촬영 및 공연이 진행된다.

진 원장은 불교계가 불교문화를 콘텐츠화 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1999년부터 3개월 과정으로 신라불교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가 '찬가파랑가'와 '만민가'를 불러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던 총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차문화축제 '총담제'를 매년 4월 넷째 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라불교문화대학과 이차돈 성사 추모대제, 원효 예술제, 황룡사지 달오름 음악회를 비롯해 폐사지 음악회를 통해 사찰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활동도 펼쳤다.

진 원장은 "황룡사지에서 열린 폐사지 음악제에는 1만 명이 모였다. 이는 경주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모인 것"이라며 "불교적이면서 문화적인 것을 활용하면 사람들 모을 수 있다는데 가능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라문화원이 2012년부터는 1년 열두 달을 주제별로 나눠 매달 남산의 불교문화를 답사하는 '남산 불적답사'도 한 지역의 불교문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답사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조계종 교육원에서 남산불적답사 연수프로그램을 공지고 스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40명 대상에 80여 스님이 신청했습니다. 스님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재 보존에도 앞장서 경주 남산 문화재 정경운동과 이정표 거리 측정 등을 진행했다.

"이제는 불교계가 단순히 재와 같은 사찰의 불교 의식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변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활용해 불교를 알리고, 불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 문화포교 활동은 지역인 결집 계기

신라문화원은 1990년 9월부터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40여 회 이어오면서 일상 속에서 불교적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중법 스님을 첫 법사로 시작해 시민회관인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년에 2차례씩 열고 있습니다. 법회

**'불교활동가' 발심 후 '불사'에 앞장서  
동국대 재학하며 '백상탑' 건립 기여  
'화주승' 소리 들어가며 직접 모연 나서**

**1993년 문화단체 '신라문화원' 개원  
'달빛역사기행' 등 체험프로 꾸준히 개발  
'시니어클럽 운영' ... '가장 보람 느껴'**

다. 이것이 모태가 돼 1993년 3월 18일 경주의 문화 예술인 50여 명이 뜻이 모인 신라문화원이 설립됐다.

### 불교문화 콘텐츠가 신라문화원의 근간

개원 때에는 대학교 시절 초청법회에 법사로 모셨던 혜국 스님과 인연이 도움이 됐다. 혜국 스님이 이사장 역할을 맡아 이사들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후원회원 조직체계가 구성됐다.

"처음에는 1~2년 가졌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를 비롯해 시민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20년이 넘게 후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원이 자리를 잡은 것은 이사님들, 회원님들이 묵묵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경주시민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신라문화원이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은 진 원장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한 몫했다.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착안·기획했다. 학창 시절의 불심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콘텐츠화해나가기 시작했다.

달이 밝은 날 밤에 등불을 들고 경주 일대 문화재

##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 틀에박힌 성지순례 이젠 그만!

### 1석 3조

미얀마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라오스 · 네팔 (1회차)  
태국 · 베트남 · 인도 · 부탄 · 인도네시아 (2회차)

부처님의 가피력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희망의 씨앗을 뿌려 드립니다.

큰스님 사찰 방문 · 고아원봉사 · 오지학교 교육지원사업 · 학교 신축 보수공사 · 불교대학 방물봉사 및 식수정수시설지원 · 각 종단 최고지도자 종교성정관이나 종단장 및 각 나라 최고지도자와 대담 친견하여 우리나라 불교문화 및 방물국 불교문화를 교류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MOU체결 및 종단 사찰 스님 제정에 맞추어 맞춤형사업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드립니다.



스리랑카 마한드라 리자팍스 대총림과 대담중인 청운대총사 큰스님.

미얀마 세이도 윈니터 큰스님 고아원 봉사를 하러가는 한국의 큰스님들.

미얀마 양곤불교대학에서 영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식 장면.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웨다곤파고다 순금이 90톤정도 부처님 세계문화유산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사무국

문의전화 1644-9079 상담자 직통 010-8288-1833 일광법사

후원 | 미얀마총교성 | 스리랑카총교성 | 캄보디아승왕청 | 라오스총교부  
네팔총교성 | 대한불교원각조계종 | 사)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여성가족부)  
주)미안성조 | 주)씨지투어 | 국제불교문화교류협회